

# “광주 복갑 조오섭 단수공천 가능성” 무게

### 최고위 인준 보류 정준호, 윤리감찰 의결 후보 반발 속 당무위 2차례나 인준 보류 이재명 지도부, ‘고뇌에 찬 결단’ 임박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복갑 정준호 예비후보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광주·전남 지역구 공천 마무리를 위한 이재명 지도부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최고위는 지난 13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정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윤리감찰단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정 후보는 지난달 19-20일 광주 복갑 당내 경선에서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꺾고 본선행이 확정됐으나 민주당은 현재까지 공천 인준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민주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

무위는 지난 6일과 11일 회의에서 정 후보에 대한 인준을 두 번이나 보류했다. 이 같은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지난 6일 당무위에서 한 차례 인준이 보류됐던 ▲동남갑 정진욱 ▲동남을 안도걸 ▲북을 전진숙 ▲광산을 민형배 후보의 경우 11일 당무위에서는 모두 인준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준호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욱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정 후보의 선거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광주 복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 화 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 예비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정 예비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저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은 잘 극복할 것이다. 불법과 관련한 어떠한 경선 운동도 벌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가 들어갔다고 후보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당 지도부가 사실상 정 예비후보 탈락에 대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의 공천 작업 마무리를 위한 이재명 지도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 임박했다는 반증이란 지적이다. 당 주변에서는 ▲첫째,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상관없이 정준호 후보를 인준하는 방안 ▲둘째, 경쟁 상대였던 조오섭 의원을 단수 공천하는 방안 ▲셋째, 조 의원과 제3의 인물이 재경선하는

방안 ▲넷째, 완전히 새로운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 하는 방안 등의 4개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 관측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4개 방안 가운데 첫째 방안은 만약 실제 선거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전체 선거판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 셋째 방안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 넷째 방안은 지역의 반발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점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조오섭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 주변에서는 광주 복구갑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늦어도 17일로 예정된 나주·화순과 영암·무안·신안 결선투표 결과 발표 전 나올 것이라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광주서 연설하는 조국 대표. 광주를 방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4일 오후 동구 충정로 우체국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김예리 기자

## 민주 현역 교체율 40% 달할 듯...친명 대약진, 비명 줄탈락

### 3선 이상 중진 46% 탈락...21대 교체율 27.9%보다 높아 '대장동 변호사 5인' 등 이재명 원의 측근 무더기 공천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3선 이상 중진을 중심으로 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이 이 전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 주류 세력인 친명(친이재명)계와 지도부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 등 원의 친명계도 대거 공천장을 받고 본선행을 확정했다. 그러나 경선을 치른 대다수 비명(비이재명)계는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감점 페널티 등에 발목을 잡혀 줄줄이 탈락하며 '비명횡사'라는 말을 낳았다. 14일 현재까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발표를 종합하면 총 254개 지역구 중 244곳의 후보가 확정됐다. 본격적인 공천 작업이 시작된 2월 초 기준 민주당 현역의원 총 16명 중 현재까지 6명(38%)이 불출마·컷오프·경선 패배·탈락 등 사유로 공천장을 받지 못했다.

아직 경선 중인 김철민·고영인(경기 안산을·병, 3인 경선), 서영석·유정주(경기 부천갑),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 등을 고려하면 현역 교체율은 40%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총선 당시 현역 교체율보다 확연히 높은 수치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현역 의원 129명 중 36명이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천에서 탈락해 교체율 27.9%를 기록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33.3%(108명 중 36명 불출마·공천탈락)였다. 선수별로는 3선 이상 중진 37명 중 17명이 탈락해 교체율 45.9%를 기록했다. 초선 의원 교체율은 43.2%, 재선 의원은 24.4%로 집계됐다. 당 주류인 친명계와 지도부 소속 현

역 의원들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비명계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친명계 핵심인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일찌감치 단수 공천을 받았다. 강성 친명계로 꼽히는 민형배(광산을) 의원은 광주 7개 지역구 현역 중 유일하게 경선에서 승리하며 홀로 생존했다. 정창래·서영교·박찬대·장경태·서은숙·박정현 최고위원,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사무부총장 등 친명계 지도부도 대거 공천장을 받았다. 지도부 내 비명계로 꼽히는 고민정 최고위원과 이계호 정책위의장 등도 단수 공천됐다. 그러나 비주류를 보면 '비명횡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공천에서 잇따라 탈락하며 입지가 쪼그라들었다. 특히 경선 득표 감사를 받는 '하위 20%'에 속한 박광온·전해철·김한정·송갑석·박용진·윤영찬 등 비명계 의원은 경선에서 사실상 전멸했다. /연합뉴스

## 시민사회, 민주당과 갈등 봉합 시도

### 1순위에 운동권 인사 대신 시각장애인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참여한 연합정치시 민회의가 14일 시민사회 및 여성 비례 대표 후보자 2명을 재추천했다. 최근 비례대표 후보 공천 문제를 놓고 위성정당 '대주주'인 민주당과 벌여졌던 갈등을 봉합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 측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내세울 시민사회 및 여성 후보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이주희 변호사를 선정해 통보했다. 이들은 앞서 시민사회가 진행한 국민오디션에서 여성 1·2위에 올랐다가 논란 끝에 사퇴한 전지혜 금융정의연

대 운영위원,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구례군농민회장에 이어 차순위를 기록해 어렵게 탈락한 바 있다. 당초 3위는 이 변호사였지만, 시각장애인인 서 전 상임위원에게 1순위로 양보하면서 서 전 상임위원이 1순위로 추천됐다. 이 같은 순위 조정은 그간 민주당이 시민사회에 요구해온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 위원과 정 회장 추천 당시 정당 활동 색채가 강한 인사들이 선정된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우려의 뜻을 표하며 재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도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만큼 정당에서 활동한 인물

보다는 장애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인사가 시민사회 및 후보로 추천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범야권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비례 후보 이력을 두고 '중복', '반미' 프레임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도층 표심 이탈을 우려하는 민주당의 입장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남은 문제는 민주당 측에서 시민사회의 비례후보 재추천을 수용할지다. 이 변호사가 매항리 반미구농성단 서울대 단장 등을 지낸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반미 전력 논란이 또 일 수 있어서다. 그는 제17·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고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농성 등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연합뉴스

## 인요한 “정치 모르는 사람도 국회 와야”

국민의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14일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파추어지만 정치를 모르는 사람도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천 출신인 인 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후보 면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도 일할 텐데 정쟁과 독선의 정치는 그만”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시작하면 변화, 통합, 희생이 완성되는지 (국회에) 들어가서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며 “4월

선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다.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몸을 던져 참여한다”고 밝혔다. 인 전 위원장은 또 외교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은 10대 강국이다. 이제 우리 이익을 철저히 찾아야 한다”며 “북쪽과의 관계 개선을 나서서 돕는 일에 밀려들었다면 한 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NEW	우라칸 SH-100	우라칸 SH-200	블리스 GOLD	마스터즈 CH-1500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고탄성 초경량 카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스파이럴 숫자 특허 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